

## 캡스톤 주간 회의

---

현 인스타그램 서치의 되지 않음을 예시로 보여주고, 우리의 시스템에 대해 잘 나옴을 어필.

시스템 구조도에서 서버 위치 상 하단 변경

개요에서 도감이라는 것을 좀더 어필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예시 하나를 찾아 보여줄것.

해시태그를 그냥 넣는 케이스 / 우리의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것을 보여줄 것.

이러이러한 형식을 주는게 아니고 단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발표를 택할것.

**최초 도감에 대한 얘기를 환기하고, 기능에 대해 보여줄 때 앤드앤드 서치 해서 잘 나오고 그것을 카테고리제이션을 표현한다 우리는 이것을 도감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이것을 얘기해야한다.

본래 vs 우리의 시스템

차이점만 분명히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엇을 이용하고 누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200초라는 시간에서 그것을 넣는다는 것은 내가 할게 없다는 내용이다.

와이어 프레임이 이미 나왔다는 느낌만 2장정도 한 5초정도 보여준다.

끝에 화면 워크플로우를 넣고 언급해주는게 좋을 것 같다.

앞에 왜 이앱을 써야하는지가 불분명함.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and연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기 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and연산을 한다고 쓰는것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이런것이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설명을 취해야 한다.

사실 더 좋은 것은 and를 하는데 and안에서 or가 될수도 있다. 예를들어 한글로 패션 영어로 패션이 그것인데, 이러한 예시 까지 넣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은 추가적인 요소인데 일단 고려하고 있을 것.

도감이 유통되는 큰 마켓을를 운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앱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감이라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앱은 그 수단일 뿐.

줄프를 한다는게 아닌 시장, 유통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다.